

최승호 시에 나타난 심층생태주의의 복잡성 연구

- 노장사상과 신과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김 동 명*

차 례

- | | |
|-------------------------------------|-----------------------------|
| 1. 머리말 | 2) 만물제동과 프랙탈의 자기유사성 |
| 2. 노장사상과 신과학의 관점을 통한
심층생태주의의 복잡성 | 3) 무위자연과 자기조직화의 재생
적 창발성 |
| 1) 곡신불사와 미분화의 창조성 | 3.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노장사상과 신과학의 관점을 통해 최승호 시에 나타나는 심층생태주의의 복잡성을 논의했다.

먼저 노장사상과 신과학의 관점을 통한 심층생태주의의 복잡성이 곡신불사(谷神不死)와 미분화의 창조성으로 논의되었다. 최승호는 혼돈으로부터 생성하는 개체와 생태계의 생명현상을 노장사상과 신과학의 관점을 통해 사유한 것이다. 또한 생태계 내 각 개체의 생명현상이 전체 생태계와 관련되며, 그러한 가운데 개체와 개체가 유사성을 보인다는 사유가 만물제동(萬物諸同)과 프랙탈 현상으로 논의되었다. 생태계 내 모

* 부경대학교 강사

든 개체와 개체, 개체와 전체는 상호조응으로 인해 자기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나아가 무위자연(無爲自然)과 자기조직화를 통한 재생적 창발성이 논의되었다. 생태계가 끊임없이 변화 생성하며 항상성(恒常性, homeostasis)을 유지하는 근거가 생태계의 복잡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승호는 그의 시에서 노장사상과 신과학을 통해 복잡성의 다양한 양상을 형상화함으로써 생태계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제안한 것이다.

주제어 : 최승호, 심층생태주의, 노장사상, 신과학, 혼돈으로부터의 창조성, 자기유사성, 무위자연

1. 머리말

최승호는¹⁾ 등단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물질문명의 폭력성과 그에 대응한 사유를 전개해 왔다. 두드러지는 내용은 자본주의적 도시화와 인간소외에 대한 성찰, 동·식물, 자연현상에 대한 사실적 관찰,²⁾ 죽음·부패·반죽·발효·허공과 무(無)에 대한 통찰 등이다. 시인은 생명현상과 관련하여 문명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 그에 대한 대안의 사유를 다양한 양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³⁾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생명현상의 비선형

1) 최승호(1954~)는 강원도 춘천에서 출생하여 춘천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77년 월간 『현대시학』에 「비발디」, 「겨울 새벽」, 「눈」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시집으로 『대설주의보』, 『세속도시의 즐거움』, 『반딧불 보호구역』, 『그로테스크』, 『모래인간』, 『물렁물렁한 책』,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나』 등이 있다. 1982년 시「대설주의보」외 48편의 시로 계간 『세계의 문학』이 제정한 제6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이후, 김수영문학상, 이산문학상, 대산문학상, 현대문학상, 미당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송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 김우창, 「관찰과 시 - 최승호 씨의 시에 부쳐」, 『대설주의보』, 민음사, 1983, 137-162쪽 참조.

3) 이승하, 「희생과 도전의 생명관에서 상생의 우주관으로-생명관의 변모로 본 최승

성, 비가역성 등에 대해 탐색하는 독자성을 보여준다.

그의 시 세계에 대한 논의는 대체적으로 『회저의 밤』을 기점으로 양분된다. 첫 시집 『대설주의보』부터 네 번째 시집 『세속도시의 즐거움』까지의 시들이 문명 비판, 훼손되는 인간성, 죽음, 카오스의 상상력, 카니발적 상상력, 부패와 그로테스크의 이미지 등 현실비판의 측면에서 논의된 반면, 『회저의 밤』 이후 시편들은 주로 불교적 세계관, 노장사상 등 대안 모색의 관점에서 파악되었다.⁴⁾ 『회저의 밤』 이후 발표된 시들은 허공 또는 무(無)의 상상력⁵⁾, 불교사상⁶⁾, 노장사상⁷⁾, 정신주의⁸⁾ 등의 연구성과가 축적되었으며, 90년대 이후 학위논문과 소논문, 평론을 통해 본격적인 생태주의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⁹⁾

호의 시세계, 『생명옹호와 영원회귀의 시학』, 새미, 1999.

이혜원, 「발 없는 새의 길」, 『작가세계』, 2002, 여름호.

4) 지금까지 시기 구분과 관련하여 최승호 시 연구는 대체로 초기와 후기, 초기·중기·후기로 나누며, 『회저의 밤』을 분기점으로 논의하기도 한다.

5) 정효구, 「최승호 시의 자연과 우주-虛와 無 그리고 空인 우주, 그 속에서 사는 길」, 『한국 현대시와 자연 탐구』, 새미, 1998, 139쪽.

도정일, 「최승호 시인의 10년-다시 우화(羽化)의 길에 선 시인을 위하여」, 『회저의 밤』해설, 세계사, 1993.

홍용희, 「미궁과 허공의 만다라-최승호론」, 『작가세계』여름호, 2002, 62-76쪽 참조.

6) 이영준, 「최승호 시에 나타난 불교적 세계인식」, 『불교어문논집』4, 1999.

홍영희, 「최승호 시에 나타난 죽음에 관한 연구」, 『국어과교육』14권, 1994.

정효구, 『한국 현대시와 자연 탐구』, 새미, 1998.

홍용희, 「최승호의 시 세계와 불교적 상상」, 『한국언어문화』43집, 2010.

7) 송영순, 「최승호 시와 노장적 사유」, 『돈암語文學』통권 제14호, 돈암어문학회, 2001.

이혜원, 『생명의 거미줄』, 소명출판, 2007.

8) 이문재, 「내가 만난 시와 시인」, 『시인의 길, 성자의 길』, 문학동네, 2003, 133쪽. 도정일, 앞의 논문.

9) 문선영, 「생명사상과 절대 긍정의 시학」, 『부산대 어문논집』48, 1996.

이선이, 「회생의 시학: 최승호론」, 『고향논집』제20호, 경희대학교대학원, 1997.

남진숙, 「한국 환경생태시 연구-이형기, 정현중, 이하석, 최승호 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한편, 그의 시적 기법인 관찰의 특징이 생태계의 정확한 재현을 위한 세밀성의 전략으로 거론되는가 하면¹⁰⁾ 실천성을 지향하는 예술성의 기법으로¹¹⁾ 논의되었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는 예술가는 자연에 대하여 거울을 높이 치켜들어야 하며,¹²⁾ 생명현상의 본질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과학과 예술은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는¹³⁾ 신물리학자의 발언을

임도한, 「한국 현대 생태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장정렬, 「한국 현대 생태주의 시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손민달, 「한국 생태주의 시의 미학적 특성 - 정현종 · 김지하 · 최승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주용, 「최승호 시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건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유병석, 「한국 현대 생태시에 나타난 동양적 세계관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장은영,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생태 의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이운경, 「최승호 초기시 연구-‘간힘’의 인식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도우희, 「최승호 생태시의 불교적 세계관」,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김성태, 「최승호 시 연구-생태주의 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혜원, 『생명의 거미줄』, 소명출판, 2007.

윤창식, 「최승호의 ‘고비(Gogi)’를 통해본 자연의 고비」, 『문학과 환경 6권 2호』, 2007.

백소연, 「최승호 시연구-생태주의 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문주, 「최승호 후기시의 자연형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회, 2010.

남송우, 『생명시학 터뒀기』, 부경대학교출판부, 2010.

정연정, 「한국 시에 나타난 불교생태의식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문송하, 「노자의 미학사상 고찰-최승호 생태시를 중심으로」, 『문예시학』27, 문예시학회, 2012.

10) 김우창, 앞의 논문, 137-162쪽 참조.

11) 이혜원, 『밭 없는 새의 길』, 『작가 세계』, 57쪽 참조.

12) 존 브리그스 외, 김광태 외 역, 『혼돈의 물리학』, 범양사, 1990, 200쪽 참조.

환기한다. 신과학의 관점에서 생태계의 복잡성을 문학적으로 사유하는 방식이야말로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생태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자연으로서의 인간을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승호 시를 대상으로 이러한 논의가 가능할 때, 불교적 세계관, 노장사상으로 주로 논의됨으로써 현실적인 대응방안으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논의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불교적 세계관과 노장사상은 근대 경험 이전에 체계화된 사상이며, 근대 경험 이후 유발된 생태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직접적인 적합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⁴⁾

그럼에도 이러한 논의는 불교적 세계관, 노장사상 등 동양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생태주의 실천의 기본 원리는 종교나 철학 안에 있을 뿐 아니라,¹⁵⁾ 심층생태주의자들이 동양사상을 수용한 스피노자와 화이트헤드에 기대어 이론을 정립했기 때문이다.¹⁶⁾ 특히, 혼돈과 무위자연의 생성을 강조하는 노장사상은 심층생태주의자들에게 현상 세계를 구성하는 상호작용, 비선형, 무질서 등 불안정한 특성과 관련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심층생태주의자들은 노장사상에서 주장하는 생태계의 특성을 복잡성으로 이해하여 심층생태주의의 주요 강령에 포함시킨 것이

13) 이진우, 「생태학적 상상력과 자연의 미학」, 『초록생명의 길Ⅱ』, 시와사람사, 2001, 417쪽 참조.

14) 고현철, 「시적 통합과 시적 감동」, 『탈식민주의와 생태주의 시학』, 203쪽.

15) Devall, B. & Sessions, G., *Deep Ecology*(Salt Lake City: Peregrine Smith Books, 1985), p. 225.

16) 1973년 노르웨이의 철학자인 아르네 네스Arne Naess가 스피노자Spinoza와 간디Gandhi, 동양사상의 영향을 받아 표방한 사상으로, 자연관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이론적 및 실천적 지향을 의미한다. 전 단계에 진행된 환경생태주의를 '표층생태주의'라 비판하면서 등장한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생태계 위기에 대응한 강령으로써 상호 연관성, 생물권적 평등주의, 전일성, 다양성과 공생성, 반계급, 복잡성을 부르짖는다.

와위크 폭스, 정인석 역, 「아네 네스와 디프 이콜러지의 의미」, 『트랜스퍼스널 생태학』, 대운출판, 2002, 107-163쪽.

다.¹⁷⁾

한편, 복잡성(complexity)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에 태동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활발해지면서 인간과 자연, 물질과 비물질의 전일적 관계를 이해하는 생명현상의 원리로 수용되었다.¹⁸⁾ 생태계의 원리를 뜻하는 복잡성은 단순성과는 대조적으로 생태계 내 구성원들의 관계가 불확실성·예측불가능성·미결정성을 담보한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생태계는 수많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서로 얽혀진 상태에서 생명현상을 발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각 개체의 생명현상은 상호작용에 의해 증폭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현상을 일으킨 원천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신과학과 연결된다.

신과학자들은 고전물리학의 기계론적 세계관과는 대조적으로 생태계 내 생명현상을 유기적·전일적·상대적인 특성으로 파악한다. 그들의 이론적 기반은 상대성 원리, 양자물리학, 비평형 열역학이론, 체계이론 등이다. 더 이상 정통과학이 현대의 과학과 사회를 올바르게 인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체론적인 세계관으로 인식의 전환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¹⁹⁾

이러한 논의를 전제할 때, 심층생태주의의 복잡성과 관련하여 문학에서 노장사상과 신과학의 관점을 통한 논의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사유는 접근 방식이 다른 가운데 생태계의 원리인 복잡성과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이다. 노장사상은 생태계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사유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으며, 신과학은 그러한 사유의 현실적 근거를 뒷받침한 것이다.

17) Naess, Arne & Rothengerg, David,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p. 165-166.

18) 에드워드 윌슨, 최재천 역, 「아드리아네의 실타래」, 『통섭』, 사이언스북스, 2005, 169쪽.

19) 케리 주커브, 김영덕 역, 「나의 길」, 『춤추는 물리』, 범양사, 2007, 140-143쪽 참조.

노장사상과 신과학을 통한 심층생태주의의 복잡성은 세 갈래로 논의가 가능하며, 문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먼저, 노장사상에서 강조하는 곡신불사(谷神不死)는 혼돈과 미분화의 세계로부터 출현하는 창조성을 뜻한다. 혼돈으로부터 출현하는 생성의 특성은 일찍이 노장사상의 곡신불사를 통해 제시된 것이다. 노장사상에서 생태계는 검은 암컷으로 비유되며, 끊임없이 쓰더라도 고갈됨이 없는 성질로서 생산과 양육의 담지체이다. 이러한 사유가 심층생태주의의 복잡성으로 수용되었으며 로렌츠의 카오스 이론, 러브록의 가이아론으로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문학에서는 혼돈 또는 무(無)의 생명성, 여백의 충만성 등으로 논의된다.

또한 전체 생태계에 속한 각 개체와 전체의 상호 조응, 그로 인한 결과가 형태로써 구조화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는 노장사상의 만물제동(萬物諸同)에서 원인이 포착되며, 만델브로의 프랙탈 이론, 라이얼 왓슨의 동·식물에 관한 설명 등을 통해 제시된다. 유기적인 우주와 생태계, 생태계와 인간,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조응하며, 상호조응한 결과가 형태로 구조화된다는 것이다. 문학에서 자기유사성은 우주와 소우주의 개념으로 다루어지며 자기복제와 관련한 유사성의 환기, 어휘의 반복, 대칭의 구조 등을 통해 암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나아가, 비생물까지 포함한 생태계가 자기조직화의 과정을 노정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자기조직화는 일찍이 노장사상에서 무위자연, 도(道)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생명은 혼돈의 의미를 담지한 무(無)로부터 출현하기에 끊임없이 무와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며, 그러한 특성을 간파한 노자는 무위자연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신과학자 프리고진은 생물학적 영역에서 낡은 구조가 붕괴되는 가운데 새로운 세포 구조가 만들어지는 현상에 주목한다. 생명현상은 소멸의 와중에서도 피드백 루프를 통해 새로운 생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학에서 생물다양성, 생태계의 예측 불가

능성, 엔트로피를 통한 생성의 논의로 이어진다.

주지하다시피, 최승호 시에서는 『회저의 밤』 이후부터 생태주의 시인으로서 독자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그는 이 시기부터 생명현상과 관련하여 복잡성의 다양한 양상을 주목한 것이다. 그가 형상화한 동·식물의 다양한 생태와 혼돈·무(無)·허공·여백·반죽·반복·붕괴 등에 대한 사유는 노장사상에서 말하는 곡신불사·만물제동·무위자연의 의미와 닿는 가운데 신과학에서 제시하는 카오스, 프랙탈, 자기조직화의 원리와 통합으로써 다른 시인들의 시와 구별된다. 최승호 시의 생태주의와 관련하여 노장사상과 신과학의 사유를 통한 복잡성의 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최승호 시에 내장된 심층생태주의의 복잡성을 노장사상과 신과학의 관점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논의의 범주는 『회저의 밤』 이후의 시편들로 한정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회저의 밤』을 본격적인 생태주의의 분기점으로 보며,²⁰⁾ 초기 시편에서 암시되던 문명 비판의 문제가 『회저의 밤』 이후부터 본격적인 대안의 주제로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의 다섯 번째 시집 『회저의 밤』(1993)부터 최근에 발행된 『허공을 달리는 코뿔소』(2013)까지 시집 12권을 대상으로 노장사상과 신과학의 관점을 통한 심층생태주의의 복잡성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0) 이승하, 「회생과 도전의 생명관에서 상생의 우주관으로」, 앞의 책, 14쪽.

이혜원, 『생명의 거미줄』, 소명출판, 2007.

성민엽, 「시선의 시학」, 최승호 『아무 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나』 해설, 열림원, 2004.

서경옥, 「최승호의 시세계 변모 연구-적멸(寂滅)에 이르는 시적 도정」,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정미경, 「최승호 시에 나타난 카오스 상상력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 노장사상과 신과학의 관점을 통한 심층생태주의의 복잡성

노장사상의 곡신불사(谷神不死), 만물제동(萬物諸同),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메타포는 생태계가 복잡성의 체계라는 사실을 생성·현상·항상성의 특징으로 설명해 준다. 개체와 개체, 개체와 전체가 전일적인 상태에서 상호작용한다는 생명현상의 원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심층생태주의에서 복잡성의 특징으로 수용되었으며 신과학의 이론으로 현실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신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생태계의 모든 생성은 혼돈의 상태인 무(無)로부터 출현하며, 생명현상은 단순한 진행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산하고 수축하는 비선형 상태를 노정한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증폭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지만²¹⁾ 모든 생명체는 상호 교류하며, 그 과정의 흔적은 자기유사성의 형태로 출현한다. 또한, 생명은 혼돈을 담지한 무(無)로부터 생성하기에 그러한 상태로 복원되려는 작용을 멈추지 않는다. 생태계의 이러한 특성에 대한 통찰은 노장에서 무위자연으로 운위되며, 신과학에서 자기조직화로 설명된다.

주지하다시피, 최승호는 노장사상에 경도되었으며, 과학적 사유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를 전제할 때, 그가 표현해 낸 허공·무(無)·여백·죽음·반복·다양성의 이미지는 생태계의 복잡성과 관련하여 곡신불사와 미분화의 창조성, 만물제동과 프랙탈의 자기유사성, 무위자연과 자기조직화의 창발적 재생성의 유형화가 가능하다. 그의 시를 대상으로 이러한 방식의 논의가 가능할 때, 생태계의 본질적 원리와 현실적 국면의 긴장을 놓치지 않고 제시한 그의 사유를 좀더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곡신불사와 미분화의 창조성에 대해 보기로 한다.

21) F. Capra, *The Web of Life*(Anchor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1996) p. 299.

1) 곡신불사와 미분화의 창조성

노장사상의 곡신불사(谷神不死)에서 ‘곡(谷)’은 허공을 형용하고 ‘신(神)’은 측정할 수 없는 변화를 의미하며 ‘불사(不死)’는 멈추거나 없어지지 않는 변화로 해석된다. 생태계는 아무 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그곳에서 만물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성장하며 변화해 간다는 것이다.²²⁾ 이러한 사유는 신과학의 가이아, 카오스 이론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생태계는 혼돈 그 자체로서 완전한 생명력을 갖춘 자궁의 담지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최승호 시에 내재된 생태적 가치관의 토대를 이룬다. “텅 빈 채 죽은 것처럼 보이는 허공이야말로 크고 작은” “영물들의 어머니로서, 수도 없이 많은 영물들을 낳고 그들의 진화와 생명을 주도해온 주인공인지도 모른다(「시인의 말」부분, 『아메바』)”는 시인의 발언은 생태계가 생명을 잉태한 곡신(谷神)으로서 불사(不死)의 의미를 내장한 생명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생태계는 인간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조작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탄생시키는 근원이자 생명 발현의 처소라는 것이다.

시 「무일물의 밤·1」, 「시골의 밤하늘」에서는 무(無)와 허공의 미분화적 창조성에 대한 사유가 포착된다.

그동안 크게 부풀면서 나를 삼키려던, 무(無)야말로 없는 것이다. 정
말 털 한 가닥 없다. 그렇다면 내가 욕심으로 키우고 뜯어먹은 무라는
것도, 내 빌어먹을 생각이 끌고다닌 말그림자였던 말인가.

—「무일물의 밤·1」전문, 『회저의 밤』58

22) “谷神不死 是謂玄牝 玄牝之門 是謂天地根 綿綿若存 用之不動”

계곡의 신령스러움은 죽지 않으니, 이것을 ‘검은 암컷’이라고 말한다. 검은 암컷의 문, 이것을 ‘천지의 뿌리’라고 말한다. 근근이 이어져 내려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것을 사용함에 다함이 없다.

노자, 김경수 역, 「제 6장」, 『노자역주』, 문사철, 2010, 89쪽 참조.

주지하다시피,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생태계를 변질시키고 황폐화시킨 근거가 생태계를 단순성²³⁾으로서의 무(無), 생명체가 아닌 도구이자 자원으로 이해한 데 있다고 본다.²⁴⁾ 생태계에 아무 것도 없다고 인식한 인류가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생명체로서의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위 시 「무일물의 밤·1」에서 화자는 ‘없다’는 의미의 “무(無)야말로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때,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무(無)’의 부정 은 도구로서의 자원이 아닌 자연으로서의 생태계에 대한 강조의 의미로 해석된다. 생태계는 가시적으로만 파악된 무(無)의 상태가 아니라 불확실성·예측불가능성·미결정성 등 복잡성을 담지한 체계로서의 에너지이자 생성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우주현상을 대상으로 한 상상력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으로 표현된다. “얼마 전 나사(NASA)는 비소(As)를 먹고 생존하는 새로운 생명체라는 사실을 발표했다. 비소를 먹고 사는 놈이 있다니! 나는 그놈도 한 영물(靈物)이라고 생각한다.”는 화자의 발언은 신과학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주지시키는 동시에 혼돈으로부터의 생성을 환기한다. 유해금속원소 중 비소(As)를 먹고 생존하는 나사(NASA)의 비유는 불가능한 사실의 가능성을 환기함으로써 불확정성으로서의 복잡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 시 「생일」에서는 생성 이전의 혼돈에 대한 사유가 포착된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혼돈에 대해 나는 무슨 말을 할수 있는 것일까.
나도 없었고 나 아닌 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 없다는 말, 있다는 말, 있

23) 단순성으로 볼 때, 세계의 질서는 하나의 법, 하나의 원칙으로 환원된다. 단순성은 일자(一者)이거나 다수로서 일자가 동시에 다수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단순성 원칙은 연결된 것을 나누거나 다양한 것을 통합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에드가 모랭, 신지은, 「복잡성 패러다임」, 『복잡성 사고 입문』, 에코리브르, 2012, 90쪽 참조.

24) 이진우, 「지구의 언어, 침묵」, 『녹색 사유와 에코토피아』, 문예출판사, 1998, 93쪽 참조.

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 없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있지
아니한 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말 따위가 무슨 혼돈의 쥐뿔이나 굽
어대는 소리였을까

—「생일」부분, 『북극 얼굴이 녹을 때』⁸²

신과학에서 생태계의 질서는 열린 시스템으로서 아무 것도 아닌 듯
하거나 독립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혼돈 속에서 물질의 이합집
산이 일어나며 그러한 가운데 새로운 생성이 출현한다. 생명현상은 혼돈
으로서의 무(無)로 진행하거나 혼돈에서 생성으로, 심지어는 현재의 혼
돈보다 더 복잡한 혼돈의 상태로 갑자기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²⁵⁾

이러한 사유는 위 시 「생일」에서 생명 탄생의 전 단계가 “나도 없었
고 나 아닌 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 없다는 말, 있다는 말, 있는 것도 아
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 없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있지 아니한 것
도 아닌 것이 아니다”로 표현된다. 또한 “허공이 큰 반죽통, 테두리도 없
고 밑바닥도 없는(……)나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면서 진흙의
형제, 혹은 물의 자매로서 아직 몸을 받지 못한 그 무엇이었다”(「18」, 「19」
부분, 『물렁물렁한 책』²²⁾로 묘사된다. 노자는 이를 삶과 죽음은 기(氣)
의 때에 응하여 모이고 흩어지는 현상일 뿐이며 어떠한 차이도 없다고
설파한다.²⁶⁾ 생성의 조건이 운동은 있으나 운동체는 없으며, 활동은 있
으나 활동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⁷⁾

이를 전제할 때, 위 시에서 “해체와 생성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화자
의 발언에서 생성의 조건은 혼돈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생성
되고 있는 시점조차 과거와 미래의 동시적 상태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25) 에드워드 로렌츠, 박배식 역, 「카오스의 안과 밖」, 『카오스의 본질』, 파라복스,
2006, 116쪽.

26) 生死一氣, 集散過程
노자, 김경수 역, 「제13장」, 앞의 책, 174쪽.

27) 카프라, 김용정 외 역, 「우주적 무도(舞蹈)」,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출
판부, 2009, 291-314쪽 참조.

생태계의 생성은 죽음과 해체를 전제하며, 무작위적이고 무질서한 사건의 뒤범벅으로서 생명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승호는 생명 탄생의 조건이 비고정성, 탈형태성, 변성을 동반한 가운데²⁸⁾ 생성과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미분화적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형상화한 것이다.

다음 시 「9」, 「3」에서는 생명현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해체와 생성의 미분화적 창조성이 발견된다.

물렁물렁한 혼돈에서 코끼리의 긴 코 하나가 빗어지기까지의 세월을 누가 알겠는가. 늙은 코끼리는 상아를 남기고 지상에서의 형상을 지운다. 죽은 코끼리가 반죽되는 땅에 코끼리 가족의 울음과 아프리카의 비와 바람과 모래가 있다.

—「9」부분, 『물렁물렁한 책』15

해체와 생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혼돈의 반죽덩어리로서 몸이 존재한다. 죽음이란 우리가 해체와 생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큰 혼돈의 반죽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3」부분, 『물렁물렁한 책』11

최승호 시에서 혼돈이나 반죽, 죽음, 해체는 다양한 의미로 논의되었다. 그의 시에서 “물렁물렁한 혼돈”이나 “혼돈의 반죽”이라는 표현은 초기시부터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었다. 초기시의 문명비판적 특징을 반영하듯, 초기시를 대상으로 한 논의에서는 죽음의 이미지를 통하여 삶의 근원에 닿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되거나²⁹⁾ 속화되고 무가치한 존재의 비유로 해석되기도 한다.³⁰⁾

그러나 『회저의 밤』 이후 시편을 대상으로 한 논의에서는 모든 개체의 생성은 복잡성이 전개되는 현상 그 자체라는 사실이 환기된다. 닫힘

28) 문혜원, 앞의 논문, 252-262쪽 참조.

29) 송영순, 앞의 논문, 35-54쪽 참조.

30) 김경복, 「최승호 시에 나타난 존재의 현상학」, 『오늘의 문예비평』, 지평, 1991, 4, 179-192쪽 참조.

과 열림, 봄빔과 텅빔이 모두 생명현상의 조건이라는 것이다.³¹⁾ 생명현상이 매 순간 새로운 공생적 관계들로 인한 불안정화, 밖으로 나가 닿음, 위험 부담을 동반한 자기 연출을 노정한다고 볼 때,³²⁾ 혼돈이나 반죽은 개체적 생성의 자율성을 내포하되 상호 의존성을 동반한 창발적 현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위 시 「9」에서 “물렁물렁한 혼돈에서 꼬끼리의 긴 코 하나가 빗어”진 다든지 인간의 몸은 “해체와 생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죽덩어리”이며, “죽음이란 해체와 생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큰 혼돈의 반죽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죽은 꼬끼리가 반죽되는 땅에 꼬끼리 가족의 울음과 아프리카의 비와 바람과 모래가 있다.”로 표현된다. 모든 생명체가 생성 이전에 해체되어 미분화의 상태를 거친다는 사실이 이와 같이 비유된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죽음 속에 죽어 천천히 녹고 있는 이름 없는 태아들”(「18」, 「19」부분, 『물렁물렁한 책』22) “내 죽음 이후와 탄생 이전의 세계는 하나같이 물렁물렁한 것이다.”(「139」부분, 『물렁물렁한 책』96)로 묘사된다. 또한 “거기에는 애벌레, 딱잎, 태아, 어린별을 가리지 않고 탄생을 돕는 질료들이 있다”(「139」부분, 『물렁물렁한 책』96)는 상상력이 동원된다. 원인과 결과라는 결정론 대신 생성하고 파괴되는 시간과 공간으로서의 생태계는 혼돈 그 자체로서 고착되지 않고 끊임없이 생성하는 생명현상 그 자체라는 것이다.³³⁾

다음 시 「시골의 밤하늘」에서 “별들”은 “씨알”로 은유됨으로써 혼돈으로부터 출현하는 생명성을 환기한다.

31) 홍용희, 「허공과 미궁의 만다라」, 『작가세계』, 2002, 여름호.

32) 에리히 얀치, 홍동선 역, 「생물의 순환 과정들」, 『자기 조직하는 우주』, 범양사, 1995, 272쪽.

33) 고봉준, 「문명의 사막을 건너가는 낙타의 시선-최승호」,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나』, 『한국문학평론』, 2003 가을·겨울, 388쪽.

시골에서 보는 별들은 씨알도 굵다. 해도 한알의, 휘황한 씨알[種卵]
인 별로서, 빛의 씨앗들을 땅에 뿌리고 있으니, 씨알별들이 수두룩한 허
공의 장관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펼쳐져 있는, 거시기라고나 할까.

—「시골의 밤하늘」부분, 『아메바』35

노장사상의 곡신불사에서 허공으로서의 생태계, 자연은 ‘근근이 이어
져 내려와 있는 듯 없는 듯하지만, 그것을 사용함에 다함이 없’는 세계로
인식된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위 시에서 ‘암컷’ “거시기”로 비유된
밤하늘, 자연은 생성의 궁극을 의미하는 생태계의 복잡성으로 맥락화된
다. 위 시에서 표제인 “시골의 밤하늘”, 즉. “시골”이라는 어휘와 함께
“씨알별들이 수두룩한 허공”은 원초적 생명성을 담지한 “거시기”, 자궁
으로 은유된 것이다. 이를 다시 신과학의 관점으로 볼 때, 이 공간은 여
러 가지의 힘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 가운데 많은 힘들이 지구에 도달
하며 지구상의 생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된다. “별들”을 비롯한 생태
계의 모든 개체나 현상은 형태가 없는 에너지로부터 생성된다는 것이다.

한편,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가 궁극적으로 태양, 즉 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생명현상의 전반에 걸쳐 모든
문제는 결국 햇빛이 있느냐 없느냐로 요약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밤하
늘”인 허공이 암컷으로 의미화된다면 “해”는 수컷의 생명성을 담지한
“한알의 휘황한 씨알[種卵]”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전제할 때, “빛의
씨앗들을 땅에 뿌리고 있”다는 구절은 암컷인 “밤하늘”과 수컷인 “해”로
환유된 우주 현상 전체의 생명성으로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생태계의
모든 개체는 우주현상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로 인해 생성하고 소
멸·재생하는 것이다.

다음 시 「엄마, 「암컷인 땅」에서 생태계는 동물과 식물의 근원으로서
모성성, 가이아로 비유된다.

엄마가 낳은 인류의 숫자가

60억을 넘어 머지않아 80억에 이른다고 한다
어마어마하다 엄마가 낳은 짐승이동물들을 다 합치면
더 어마어마할 것이다

—「엄마」부분, 『허공을 달리는 코뿔소』38

당근이며 무며 감자들이며 다 땅에서 나옵니까. 잣나무며 까마귀며루며
말오줌나무들이 다 뿌리를 땅에 찰라박고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
까. 가을날 하늘 아래 주렁주렁 달려 있는 열매들이, 모천(母川)으로 돌
아와 알 낳는 연어들처럼,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암컷인 땅
에 죽음으로써, 자자손손 번성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암컷인 땅」전문, 『반딧불 보호구역』79

신물리학에서 노장사상의 곡신불사(谷神不死)는 가이아의 의미로 변
용되었다. 곡신불사는 끊임없는 생성의 의미를 담지하며, 가이아는 생성
과 성장, 소멸과 재생의 조절력으로서 생명현상을 뜻한다. 위 시 「엄마」
에서 “엄마”는 곡신이자 가이아로 해석이 가능하다. 대지로서의 생태계
는 “인류”와 “동물”들을 “낳”고 기쁨으로써 곡신이자 가이아의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다. 위 시의 화자는 가이아인 생태계에서 인류와 “짐승이
동물들이” “60억을 넘어 머지않아 80억에 이”를 것임을 예상한다. 이러
한 맥락 속에서 인류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발언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가이아로서의 생태계에서 끊임없이 생성·성장·소멸·재
생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나아가 위 시 「암컷인 땅」에서 화자는 가이아인 생태계로부터 생성한
각 생명체들이 그 자체로 모성성을 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당근이며 무며 감자들”, “잣나무며 까마귀며루며 말오줌나무들이” “암
컷인 땅”으로부터 생성되었지만 “암컷인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자
자손손 번성하”는 생명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생태계의 순환성 자체가 “암컷”으로서 가이아라는
의미를 창출한다.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은 순환으로서의 회귀가 전체

된 대상이며 씨앗의 생명성을 내장한 “암컷”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승호 시에서 도출된 곡신불사와 미분화의 창조성은 인류로 하여금 생성과 관련하여 생태계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추동한다. 생태계 위기는 인간중심주의로 인해 생태계를 단순성의 도구적 대상으로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그는 생태계를 인식할 때, 기존의 환원주의적, 기계론적 인식을 뛰어넘어 더 복잡하면서도 불안정한 상태의 대상으로 이해하도록 권유한다. 곡신불사와 미분화적 창조성의 상태에서 생성하는 생태계의 복잡성을 이해할 때, 인간중심주의의 도구적 자연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만물제동과 프랙탈의 자기유사성

장자는 “천지는 나와 함께 하나[萬物諸同]”라고³⁴⁾ 설파하여 생태계의 모든 개체들이 생태계와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서로 통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³⁵⁾ 살아 있는 개체들은 더 큰 전체의 내부에 깃든 가운데 생명 현상을 발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각 개체와 생태계 전체가 전일적이라는 사실을 환기함으로써 만물이 변화하지만 변화 속에는 일관된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한편, 프랙탈 이론의 창시자인 만델브로는 자연현상의 다양한 양상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 형태들이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간파했다.³⁶⁾ 그가 볼 때, 생태계 내 각 개체는 생성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 전체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흔적으로서 유사성을 지니게 된다. 인간을 비롯해 미물까지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은 소우주로서 그 자신 안에 세계 전체를 반영하며, 각 세포는 생태계의 온갖 정보를 담겨

34) 天地與我並生, 而萬物與我爲一

장자, 최효선 역해, 『내편-제물론』, 앞의 책, 57-58쪽.

35) 장자, 최효선 역, 『내편-제물론』, 앞의 책, 36-37쪽 참조.

36) F. Capra, *The Web of Life*, p. 137.

되므로 같은 정보의 영향을 받은 개체끼리 서로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화이트헤드는 합생(合生)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합생에서 생태계의 일자성(一字性, oneness), 그리고 생태계 내 각 요소의 일자성은 상호 작용하면서 되풀이된다. 그러한 가운데 각 개체들은 저마다 세계 전체를 자신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근거를 유사한 구조와 형태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다.³⁷⁾

시 「한 섬광」에서 생명현상을 발현하는 모든 개체와 현상은 전체와 상응한다는 사실이 환기된다.

바다 한 조각을 빈손에 떠서 맛본 사람은 바다의 끝뿐만 아니라 바다 밑바닥까지 다 맛본 것이 된다. 만약 세계의 본바탕이 한 바다와 같다면 조개껍질 하나, 이슬 한 방울, 한 송이 꽃의 비밀을 맛보는 것이 전체를 한 순간에 다 아는 것이 될 것이다.

—「한 섬광」부분, 『여백』66

위 시 「한 섬광」에서 화자는 생태계의 모든 개체가 전체와 상호작용함으로써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위 시에서 “바다 한 조각을 빈손에 떠서 맛”보며, 화자는 “바다 밑바닥까지 다 맛본 것이”라고 발화한다. 개체와 전체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사유가 포착되는 것이다.

나아가 화자는 “조개껍질 하나, 이슬 한 방울, 한 송이 꽃의 비밀을” 알게 될 때 지구 “전체를 한 순간에 다” 알 수 있다고 발언한다. 생명현상은 매 순간 “한 섬광”, 즉 생태계의 정보가 수용되고 반영되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혼돈의 상태로 파악되는 생태계의 낮과 밤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규칙적인 패턴으로 변화하며, 이 패턴은 모든 개체의 생명현상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화자는 생태계의 모든 개체나 현상, 분

37)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과악의 이론」, 『과정과 실재』, 민음사, 1991, 454-455쪽 참조.

자들이나 원자들, 전자들 같은 미세한 입자들까지도 나뉠의 방식대로 서로를 포함하며 전체 생태계와 일치하는 가운데 속하므로 만물제동한 상태이며, 그 결과 프랙탈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음 시 「無管樂器」, 「나는 숨을 쉰다」에서는 이러한 사유의 근거가 포착된다.

바람은 구멍투성이 영성한 세상을 한 자루 피리로 분다. 금관악기도 목관악기도 아닌 그 무관악기의 혼돈 소리를 당신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無管樂器」부분, 『여백』68

신기해라 나는 몇지도 않고 숨을 쉰다
내가 곤히 잠잘 때에도
배를 들썩이며
숨은, 쉬지 않고 숨을 쉰다
숨구멍이 많은 잎사귀들과 늙은 지구덩어리와
움직이는 은하수의 모든 별들과 함께

숨은, 쉬지 않고 숨을 쉰다 대낮이면
황소의 태양과
날아오르는 날개들과 물방울과 장수하늘소와 함께
몽계구름과 낮달과 함께
나는 숨을 쉰다 인간의 숨소리가
(... 중략 ...)
그리고 움직이는 은하수의 모든 별들과 함께
죽어서도 나는 숨쉴 것이다

—「나는 숨을 쉰다」부분, 『얼음의 자서전』30

응에 의하면 아랍인들의 경우 바람은 숨결과 정신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함의한다.³⁸⁾ 고도의 활동 단계로 들어갈 때 바람은 태풍이 되며, 이

38)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187쪽.

것은 물·불·공기·대지의 네 요소가 종합된 것으로 비옥과 소생의 힘을 상징한다. 이는 바람을 “땅덩어리가 뿔어 올리는 숨”이라고³⁹⁾ 보는 만물제동 사상과 닿는다. 바람은 공기의 자장을 변화시키며 공기의 변화는 각 개체의 생명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 시 「無管樂器」에서는 바람과 관련한 만물제동의 사유가 포착된다. 위 시에서 “바람은 구멍투성이 영성한 세상을 한 자루 피리로” 분다고 표현한다. 여기서 ‘무관악기’란 바람은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 스며들기 때문에 셀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사람의 숨결을 비롯하여 대지 위의 온갖 구멍을 드나들며 작용하는 관(管)이기 때문에 무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람이 전체 생태계와 상호작용하며 각 생명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자기유사성의 출현을 예상하게 한다.

위 시 「나는 숨을 쉰다」에서 이러한 인식은 좀더 구체화된다. 화자는 “쉬지 않고 숨을 쉰다 대낮이면/황소와 태양과/날아오르는 날개들과 물방울과 장수하늘소와 함께/몽계구름과 낮달과 함께” 숨을 쉰다고 발언한다. 그러한 가운데 생태계의 동물과 곤충과 우주현상이 자신과 함께 숨을 들이쉬고 내쉽으로써 ‘하나’라는 사유를 보여준다. 나아가, 화자는 “죽어서도” “움직이는 은하수의 모든 별들과 함께” 숨을 쉴 것이라고 말한다. 화자는 생태계 내 모든 개체의 “들숨”이 “허공의 날숨이요” 모든 개체의 “날숨이 바로 허공의 들숨이라”는 만물제동의 인식에 도달한 것이다.

시 「조개껍질」에서는 프랙탈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과 원인을 환기한다.

물렁물렁한 것이 떨어져나가고
 딱딱한 것만 남아 있다
 텅 비어 열린 곳에는 모래들이 흘러들었다

39) 夫大塊噫氣，基名爲風

장자, 최효선 역, 「내편-제물론」, 앞의 책, 34쪽.

이 조개껍질 속에 한때
고독한 삶이 있었다

웅크리면서 펼치는
우주적인 우연성의 무늬들이 있었다

—「조개껍질」부분, 『아무 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나』⁴⁰

주지하다시피, 프랙탈은 주위환경의 압력이 개체에 영향을 주고 개체는 이 파동들의 주파수에 직접적인 형태를 취함으로써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그 결과 모든 개체의 형태들은 나름의 속성을 지니게 되며, 그 속성은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주위환경에서 발산하는 파동의 주파수가 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나무의 줄기에 나타나는 나이트, 얼룩말의 얼룩무늬, 달팽이의 나선무늬들은 주위환경의 압력과 개체의 필요를 조화시킨 타협물이라는 것이다.⁴⁰⁾

위 시 「조개껍질」에서 화자는 밀려오는 조수에 맞춰서 접고 펼치는 조개껍질을 프랙탈 현상으로 인식한다. 이는 전체성에 대해 통합하는 개체의 활동이 다층적으로 지속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은하의 중심을 도는 태양,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생태계, 지구생태계와 상호 연관성을 갖는 각 개체와 미세 영역은 다층적 구조를 형성하는 가운데 확산작용과 수축작용을 반복한다. 이를 전제할 때, “웅크리면서 펼치는”은 조개로 대표되는 생태계 내 전체 개체의 의존과 전체 생태계의 요동이 상호 조율하는 가운데 펼쳐지는 에너지의 흐름을 환기한다. 조개껍질로 표상된 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는 우주현상에 맞춰서 스스로의 감각기관을 열고 닫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개껍질”의 무늬는 조개가 생명현상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40) 라이얼 왓슨, 박문재 역, 『생명의 물리학』, 『초자연』, 인간사, 1991, 171-173쪽 참조.

생태계의 정보를 주고 받은 결과 새겨진 구조, 형태로서의 유사성을 시사한다. 조개껍질에 새겨진 “우연성의 무늬들”은 세포분열이나 염색체, 유전자를 암시함으로써 생태계의 모든 개체에 나타나는 프랙탈 현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다음 시 「나도꼬마하루살이」에서는 어휘의 반복을 통해 자기유사성이 암시된다.

나도꼬마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봄충각하루살이 봄치녀하루살이 깨
알하루살이 콩알하루살이 길쭉하루살이 개똥하루살이 표범하루살이 애
호랑하루살이 금빛하루살이 감초하루살이 방울하루살이 수리하루살이
두날개하루살이 입술하루살이 흰줄감장하루살이 강하루살이 작은강하
루살이 피라미하루살이 멧피라미하루살이 가람하루살이 한라하루살이
백두하루살이

—「나도꼬마하루살이」부분, 『북극 얼굴이 녹을 때』70

주지하다시피, 천체들의 운동과 이 천체들에 대한 지구의 운동은 각 개체들로 하여금 생명현상을 가능케 하는 정보의 발원지로 작용한다.⁴¹⁾ 모든 생명체는 거대한 우주의 전구 같은 태양을 쬐다 쬐다 하는 지구의 회전에 의해 유사한 패턴으로 작용하며, 그 흔적은 프랙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전자기파의 진동을 일으키며 각 개체와 공명함으로써 동일한 진동을 만들어낸다.⁴²⁾ 모든 개체는 각자 우주에서 보내는 정보에 반응하며 심장박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생성하고 진화해 가는 것이다.

시 「나도꼬마하루살이」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프랙탈 현상, 자기유사성이 포착된다. 또한, 위시 “나도꼬마하루살이”에서는 “하루살이”라는 표현을 통해 단 하루밖에 살지 못하지만 24시간으로서 “하

41) 라이얼 왓슨, 박문재 역, 「우주의 법칙과 질서」, 앞의 책, 85쪽.

42) 라이얼 왓슨, 박문재 역, 「생명의 물리학」, 위의 책, 165쪽.

루”라는 주기적 단위의 상호작용이 암시된다. 생태계의 에너지인 달과 해의 작용은 어떤 대상에도 “하루”라는 단위로서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 시에서 “하루살이”의 반복은 반복되는 해와 달의 리듬에 반응하는 생물체의 생명현상을 암시한다. “하루살이”라는 어휘에서 태양과 달의 주기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이 암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나도꼬마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봄총각하루살이” 등 “~하루살이”가 73번에 걸쳐 되풀이된다. 모든 개체의 생명현상은 복잡성의 와중에서도 유사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최승호 시에서 프랙탈은 주제의 측면을 넘어 기법적 특징에서도 포착된다. 예를 들어, “세상에 나온 지 여섯 해 된 두눈박이 네 눈의 깜박임. 고양이도 두눈박이, 개들도 두눈박이, 잉어도 두눈박이다. 뱀도 두눈박이, 잠자리도 두눈박이, 올빼미도 부엉이도 두눈박이”(「138」 부분, 『물렁물렁한 책』96)로 표현된다. “눈”은 모두 두 개라는 유사성의 암시와 함께 반복적 기법은 자기유사성의 의미를 증폭시킨다. 반복적 표현이 생명장의 주파수를 환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태계 자체는 혼돈의 세계로 은유되지만 생물을 만들어 낼 때, 생태계의 에너지는 일정한 리듬을 지닌 가운데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생태계의 주기와 자장은 태양과 달을 비롯한 자연현상에 영향을 받는 까닭에 그 에너지의 자력은 모든 개체에 미친다. 이는 자연의 주기가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준다. 모든 개체는 자연의 법칙이 하나의 시기를 구성하는 자연 자체와 더불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이다.⁴³⁾

최승호 시에서 프랙탈 현상은 모든 개체가 자연으로서 서로 닮는다는 사실을 암시하며, 만물에 작용하는 자연의 힘과 질서의 작용을 환기한다. 인간이든 하찮은 미물이든 그 자신 안에 자연의 질서를 반영하고 있

43)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논의와 적용』, 앞의 책, 237쪽.

다는 것이다.

2.3 무위자연과 자기조직화의 재생적 창발성

주지하다시피, 생태계의 생명진화는 복잡성을 더해 가면서도 하나의 통합된 과정으로 지속되어 왔다.⁴⁴⁾ 이러한 현상은 일찍이 노장사상의 무위자연을 통해 암시되었다. 노자에게 만물은 더불어 일어나며 그 작용은 무한히 반복된다. 이때, 반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가 우주 본원의 잠재적 창조성으로 되돌아감을 의미한다.⁴⁵⁾ 이러한 사유의 과학적 근거는 엔트로피 이론을 통해 제시된다. 무질서하고 구조가 없어 보이던 비평형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엔트로피의 작용을 통해, 무(無)나 공(空), 즉 우주 본원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다시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⁶⁾

한편, 러브록은 지구생태계를 가이아로 명명하고 모든 지상의 생물들에게 적합하도록 주변 환경 조건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생물조직체와 같다고 주장한다.⁴⁷⁾ 생물과 마찬가지로 지구생태계는 인간의 오장육부와 사지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니며 그 역할을 달리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성장하며, 배설과 소멸, 재생을 반복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최승호의 자서에서는 이러한 원리에 대한 인식이 포착된다.

나는 쓰고 싶다/문을 열 때마다/낮설고 놀라운 풍경이/눈앞에 처음 펼쳐지는 것처럼.

—「시집을 펴내며」부분, 『아무 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나』

44) Naess, Arne & Rothengerg, David, *op.cit.*, pp. 165-166.

45) “知基雄, 守基雌, 爲天下谿, 爲天下谿, 常德不離, 復歸於嬰兒”

노자, 김경수 역, 『제28장』, 앞의 책, 371쪽 참조.

46) 스투어트 카우프만, 국형태 역, 『고산지대의 모험』, 앞의 책, 328쪽.

47) James E. Lovelock, 홍욱희 역, 『가이아Gaia』, 범양사, 1990, 202-223쪽 참조.

위 인용문에서 보듯 최승호는 시집 『아무 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나』의 서문에서 매 순간이 “처음 펼쳐지는” “풍경”인 것처럼 “쓰고 싶다”고 발언한다. 여기서 쓴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나’라는 표제와 관련해볼 때, 매 순간의 생명현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문을 열 때마다/낫설고 놀라운 풍경이”라는 사실은 매 순간 다른 생명체와 상호 조응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생명현상을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최초의 생성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시인은 어떤 개체든 매 순간 독립적이거나 단독자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아무 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이다.

시 「이것은 죽음의 목록이 아니다」에서는 생물 다양성으로 인한 무위자연과 자기조직화의 재생적 창발성이 암시된다.

수달 멧돼지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멧밭쥐 다람쥐 관박쥐 검은 댕기
 해오라기 중대백로 쇠백로 왜가리 원앙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비오리
 조롱이 새홀리기 꿩 갑작도요(...중략...)고욤나무 감나무 노린재나무 쪽
 동백나무 때죽나무 회물푸레 쥐똥나무(...중략...)영경취 지칭개 각시취
 큰각시취 빗살서덜취 사창분취 당분취 구와취 툽분취 은분취 서덜취
 「이것은 죽음의 목록이 아니다」부분, 『반딧불 보호구역』11-17

생태계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던 유기체가 최대 엔트로피 상태인 소멸을 향해 나아가지만 다시 평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음의 엔트로피’, 즉 숨은 질서로서의 에너지를 끌어들이기 때문이다.⁴⁸⁾ 이는 일반적으로 생태계 전체가 거대한 에너지의 배경임을 시사한다. 이를 전제할 때, 생태계의 개체는 풍부해야 하고 그 범주는 넓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양성이 확보될 때 온생명인 지구생태

48) 에르빈 슈뢰딩거, 전대호 역, 「질서, 무질서 그리고 엔트로피」, 『생명이란 무엇인가』, 궁리, 2007, 119-120쪽.

계의 자기 조절력이 왕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49)

이러한 논의를 전제할 때, 다양성과 관련하여 최승호 시의 무위자연과 자기조직화의 재생적 창발성은 동·식물의 묘사에서 먼저 찾을 수 있다. 위 시에서 화자는 산림청 ‘동강 유역 산림생태계 조사보고서’에 등재된 800여 종의 생명체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 각 개체의 생명성이 평형에서 멀어질수록 풍부해진다고 볼 때, 위 시에서 포착되는 동·식물의 다양성은 평형에서 멀어지는 현상과 관련하여 자기조직화의 재생적 창발성과 연관된다. 생명은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반응하지만 다양성으로 인해 그 충격이 흡수되거나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위 시 「이것은 죽음의 목록이 아니다」라는 표제 또한 “이것”을 지칭하는 동·식물의 종류가 “죽음의 목록”이 “아니”라는 발언으로서 생명성을 강조하는 생태주의의 메시지와 닿는다. 이러한 발언은 각 개체에 대한 존중의 의미와 함께 죽음을 포괄한 생성의 특성으로서 자기조직화의 의미를 창출한다. 생태계의 모든 개체나 현상은 생성과 동시에 소멸을 동반하며, 소멸은 생성으로 이어짐을 전제하기 때문에 “죽음의 목록”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개체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성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는 시 「소행성」에서 비평형 상태를 거쳐 평형 상태가 출현하는 양상으로 형상화된다.

백악기 대멸종.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들이 다 죽은 것은 소행성
 칩살람이 지구와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학설이 있다. 없는 내가 허공으
 로 존재했던 6500만 년 전 이야기.

49) 생물체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와 군락의 다양성, 종의 다양성을 말하며, 생물 종이 다양할 때, 어느 한 종이 제거되어도 생태계의 평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준호 외, 『환경물리학』, 형설출판사, 2002, 88-89쪽.

어느 날 나 없는 나의 고독은
동쪽 은하
외뿔소자리에서 고개를 쳐들 것이다

—「소행성」부분, 『허공을 달리는 코뿔소』¹⁷

노자는 생태계의 모든 개체가 “음을 지고 양을 안아서 충기(沖氣)로써 조화로 삼는다”⁵⁰)고 설파하여 만물은 대립적인 성질에 의해서 생겨나지만, 대립성을 통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프리고진은 분기점의 기로에서 초래되는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계를 평형상태, 평형에 가까운 상태, 평형에서 먼 상태, 비평형상태로 구분해 자기조직화 현상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체계 내에서의 작은 동요가 체계를 평형에서 멀리 유도하면서 분기점에 도달해, 다음 상태의 혁신으로서 생성이 가능해지는 점을 간파했다. 노자의 조화와 프리고진의 혁신은 대립의 무화를 통해 생성으로 나아가는 특징으로서 상통하는 것이다.

위 시에서는 비평형상태를 거쳐 창조적인 평형상태가 출현하는 양상이 포착된다. 소행성(小行星, Asteroid)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보다 작은 천체이다. 위 시에서 “칙술롭”이라는 소행성은 지구의 자기조직화를 이끄는 사건의 발단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화자가 인식할 때, “백악기 대멸종, 즉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들이 다 죽은 것은 소행성 칙술롭이 지구와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행성 칙술롭”이 “지구”와 “충돌”하여 “백악기 대멸종”을 거쳤거나 “나 없는 나의 고독은” 무(無)를 통해 가능한 생성의 의미로서 자기조직화를 암시한다. 완전히 “멸종”하거나 “없”다는 의미로서 무(無)의 상태를 거쳤기에 작금의 창조적 평형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화자는 “어느 날 나 없는 나의 고독”이 “동쪽 은하/외뿔소자리에서 고개를 쳐들 것”이라고 발화한다. 화자인 내가 “동쪽 은하/외뿔소자

50) 萬物負陰而抱陽，沖氣以爲和。

노자, 김경수 역, 『제42장』, 앞의 책, 533쪽.

리에서” “어느날” 다시 “고개를 쳐들 것”이라는 구절은⁵¹⁾ 자기조직화가 평형상태와 거리가 먼 열린 시스템에서 나타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생태계의 복원력이 무(無)에서 유(有)로, 유에서 무로 다양성의 상태를 오가면서 새로운 질서의 무한한 창발⁵²⁾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때, “어느날”은 평형에서 멀다는 의미가 내포된 생명성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비평형 상태에서 출현하는 평형상태에 관한 사유는 시 「눈다랑어」에서 구체화된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어느 날 당신이 태양계의 장님이 되고 은하계의 귀머거리가 되어서 광물질계의 한 병어리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나 아닌 것들이 모여서 나를 잠시 이루었다 해체되듯이, 당신도 당신 아닌 세계로 흘러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슬, 바람, 흙, 별, 그것들이 본래 당신의 얼굴 아니었나? 바다와 하늘과 노을과 풀, 그것들이 본래 당신의 발바닥 아니었나?

—「눈다랑어」부분, 『북극 얼굴이 녹을 때』¹⁶

일반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대립적이거나 공존적 관계이거나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는 입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논의는 자연과 인간이 분리된 채로 공존하든지 자연의 우위만을 강조하기에 자연과 인간의 존재론적 연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장사상의 관점으로 볼 때, 생명은 실체가 아니라 생성으로서 복잡성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할 때, “나 아닌 것들”은 “잠시” 나를 “이루었다 해체되”는 과정으로서 생성의 상태임을 의미한다. ‘나 아닌 것들이 모여서 나를 잠시 이루었다 해체되듯이, 당신도 나도 당신 아니고 나 아닌 세계로 흘러드는 날이 있을 것

51) F. Capra, *The Web of Life*, p. 89.

52) 에리히 얀치, 「자기 조직 체계들의 모델 설정」, 앞의 책, 105쪽 참조.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계의 모든 현상, 즉 “이슬, 바람, 흙, 별” 그리고 “바다와 하늘과 풀” 등은 스스로의 본질을 현현하는 가운데 나 자신 속에도 용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생태계의 단순한 질서와 모든 종류의 질서는 생명현상의 과정인 동시에 새로운 생성을 의미한다.⁵³⁾ 화자는 “어느 날” 인간을 비롯한 모든 개체가 “광물질계의 한 병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서 이러한 사유를 암시한다. 자신을 비롯한 모든 개체가 비선형적이고 비가역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다음 시 「텔레비전」에서는 엔트로피 현상으로서의 자기조직화가 포착된다.

하늘이라는 無限화면에는
구름의 드라마,
늘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되네
연출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수줍은지
모습 드러내지 않네

지난 여름의 주인공은
태풍 루사가 아니었을까
루사는 비석과 무덤들을 무너뜨렸고
오랜만에 뺨들은 진흙더미에서 해방되어
강물로 뛰어들었네

기를 쓰며 울어대던 말매미들이
모두 入寂한 가을
붉은 단풍이 고산지대로부터 내려오고
나무들은 벌거벗을 준비를 하네

—「텔레비전」부분, 『아무 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나』⁵⁶

53) 라이얼 왓슨, 박문재 역, 「우주의 법칙과 질서」, 앞의 책, 33쪽 참조

노장사상에서 제시되는 무위자연은 생성하는 가운데 소멸하며, 소멸하는 가운데 다시 시발점으로 돌아가는 생태계의 특성에 대해 인위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시사한다. 이러한 사유는 생태계의 되먹임조절(feedback control)을 통한 항상성의 의미로서 신과학의 근거가 마련된다.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불안정의 지점에서 질서가 창발하며, 그러한 가운데 복잡성이 전개된다는 사실은⁵⁴⁾ 되먹임 조절을 통한 자기조직화를 환기한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신물리학자 슈뢰딩거(E. Schrodinger)는 한 개체가 자신에게로 ‘질서의 흐름’을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원자적인 카오스로의 파멸을 피하는 재생적 특성에 주목한다.⁵⁵⁾ 그가 볼 때, 생태계 내 모든 개체는 음의 엔트로피를 자신에게로 끌어들여 자신이 살면서 발생시킨 엔트로피 증가를 상쇄하기 때문에 일정한 엔트로피의 수준이 유지된다. 지구생태계는 생명체들의 생성에 관여하지만 스스로의 항상성을 위해 지나치게 팽창한 개체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할 때, 위 시 「텔레비전」에서 재현된 태풍은 빠르게 움직이는 전자들과 양자들의 물결이 태풍이 되어 우주공간을 질주하는 풍경을 환기한다. 위 시에서 화자는 태풍 “루사”로 인해 “진흙더미에 갇혀 있던 뼈들”이 “강물”에 섞이는 장면에서 새로운 생명현상의 징후를 포착한다. “뼈들”이 무너진 무덤 밖으로 해체되는 현상을 “해방되어” 강물로 뛰어 들어간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해방”은 소생의 의미를 담지하며, “강물” 역시 생명성을 의미한다. “해방”과 “강물의 결합은 되먹임조절을 통한 생명현상의 비유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는 화자의 인식에서도 포착된다. 여름 내내 “기를 쓰며 울어대던 말매미들이/모두 入寂”하자 비로소 “가

54) F. Capra, *The Web of Life*, p. 190.

55) 에르빈 슈뢰딩거, 전대호 역, 「생명은 물리학 법칙들에 기반을 두는가」, 앞의 책, 130-131쪽 참조.

을”이 오고 “붉은 단풍이 고산지대로부터 내려” 온다는 구절은 지구생태계와 해, 달의 인력과 관련한 자기조직화를 암시한다. 단풍은 자신의 잎을 통해 해와 달의 운행 등 주위환경의 계절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반응한다.⁵⁶⁾ 단풍의 빛깔은 소멸을 향해가는 증거로서 반응의 결과물인 것이다. 계절의 변화가 “말매미들”의 죽음을 전제한다는 비유 역시 우주 전체와 개체의 엔트로피, 자기조직화 현상을 암시한다. 가뭄과 장마, 태풍 등의 기상변화가 생태계 내 생명현상의 되먹임조절의 현상이라는 사유가 포착되는 것이다.

다음 시 「공터」, 「분수」, 「몸의 신비, 혹은 사랑」에서는 자기조절력으로서의 생태계가 비유된다.

하늘의 빗방울에 자리를 바꾸는 모래들.
공터는 흔적을 지우고 있다
아마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고요가
공터를 지배하는 왕일 것이다

—「공터」부분, 『얼음의 자서전』52-53

물이라는 이상한 물질의 처녀막은 너무나 투명해서 그런게 있었는데
조차 모를 정도이다. 그 막은 찢어짐과 동시에 깨매지고 피흘림 없이 처
녀성을 회복한다.

—「분수」부분, 『북극 얼굴이 녹을 때』86

벌어진 손의 상처를
몸이 자연스럽게 깨매고 있다.
금실도 금바늘도 안 보이지만
상처를 밤낮없이 튼튼하게 깨매고 있는
이 몸의 신비.
혹은 사랑

—「몸의 신비, 혹은 사랑」부분, 『얼음의 자서전』95

56) 라이얼 왓슨, 박문재 역, 「우주의 법칙과 질서」, 앞의 책, 67쪽 참조.

노자는 자기조직하는 자연의 특성을 강조하며, 인간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저절로 그러함[自然]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⁵⁷⁾ 생태계가 끊임없이 유동하는 생성의 상태로서 스스로 변화해가며 진화해간다는 것이다.⁵⁸⁾ ‘스스로 그러함’은 인간중심주의의 획일성에 대응함으로써 복잡성의 의미를 담지하며, 생태계가 복잡성의 상태를 유지할 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신과학자들의 양자역학, 불확정성 원리에서도 다양하게 제시된다. 시스템 전체를 통한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 평형과는 거리가 먼 안정된 상태, 새로운 질서 패턴의 창발, 피드백 루프와 비선형에 관한 기술이 바로 그것이다.⁵⁹⁾ 생태계는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 발전하는 복잡성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인 인간 역시 자연법칙에 따라 행위하고 인위적인 작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위 시 「공터」에서 “하늘의 빗방울에 자리를 바꾸는 모래들”은 자기조직화의 비유로 해석이 가능하다. 인간의 의도가 아니라고 전제할 때, 생태계의 개체나 상황이 계속 “자리를 바꾸며” 자연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이 자연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의 빗방울”이 “모래들”의 “흔적”을 지우는 현상은 “비”로 표상된 대기의 영향이 “모래”로 표상된 각 개체의 결합을 부수거나 그 형태를 바꾸는 데 인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로서 무위자연과 자기조직화의 의미를 창출한다.

시 「분수」에서도 자기조직화의 복원력에 대한 사유가 포착된다. 시 「분수」에서 “물”은 생명성으로서 전체 생태계로 비유되어 있다. “물이라는 물질”로 표상된 생태계의 “치녀막은 너무나 투명해서 그런 게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생명성이 강하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물”을 생태

57)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노자, 김경수 역, 「제25장」, 앞의 책, 346쪽 참조

58)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관념의 모험」, 앞의 책, 155쪽 참조

59) F. Capra, *The Web of Life*, p. 111.

계 자체이자 자연현상의 알레고리로 볼 때, “그런 계”는 생태계 위기를 유발한 사건들로 맥락화된다. 원래의 생태계, 즉 자연현상은 생태계 파괴를 유발한 사건이 일어났었는지조차 모를 정도의 복원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시 「몸의 신비, 혹은 사랑」에서 부분적 훼손에 대한 직접적인 복원력을 환기한다. 시 「몸의 신비, 혹은 사랑」에서 “몸”이 가이아로서 모성성을 담지한다고 볼 때, 자연의 순환성과 재생성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전제할 때, “벌어진 손의 상처를” 보이지 않는 “금실”과 “금바늘”로 “꿰매고 있”다는 표현은 생태계의 자기조절력을 암시한다. 오장육부와 사지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니며 그 역할을 달리하는 가이아로서의 생태계는 자기조직화의 재생적 창발성을 담지한 생명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승호의 시에서는 생태계의 다양성, 엔트로피를 통한 생성, 자기조절력 등 재생적 창발성이 형상화되었다. 그는 인류가 복잡성으로서의 생태계, 즉 자기조직화의 특성을 이해할 때 인간중심주의의 자연관에서 벗어나 무위자연의 생태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3. 맺음말

지금까지 최승호 시를 대상으로 노장사상과 신과학의 관점을 통해 심층생태주의의 복잡성을 도출했다. 그는 인간중심주의를 생태계 파괴의 원인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노장사상과 신과학의 사유를 통해 심층생태주의의 복잡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으로 형상화된 그의 시는 네스를 이론을 바탕으로, 노자와 장자, 에드워드 로렌츠, 만델브로, 슈뢰딩거, 에리히 얀치, 라이얼 왓슨

등의 이론이 적용되었다. 그들의 사유를 토대로 곡신불사(谷神不死)와 미분화의 창조성, 만물제동(萬物諸同)과 프랙탈의 자기유사성, 무위자연(無爲自然)과 자기조직화의 재생적 창발성이 도출된 것이다.

먼저 그의 시에서 생태계 내 모든 개체의 생성이 무(無)로부터의 생성이 아닌 미분화 상태, 혼돈으로부터의 출현으로 가능하다는 곡신불사와 미분화의 창조성이 도출되었다. 이는 허공, 무(無), 반죽, 여백의 이미지로서 카오스, 가이아의 혼돈 등 비선형성, 비가시성, 비가역적인 특징을 암시한다. 이러한 사유가 노장사상의 곡신불사, 로렌츠의 카오스 이론을 통해 심층생태주의의 복잡성으로 도출된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만물제동과 프랙탈의 자기유사성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그의 시에서 생태계 내 개체의 생성과 성장, 소멸의 과정이 유사하며, 전체 생태계와 매 순간 합일하는 양상으로 그려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우주와 소우주의 대칭 구조로 분석되는가 하면 단어, 문장의 반복 등이 자기유사성의 암시적 표현으로 논의되었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만물제동과 프랙탈을 통한 자기유사성이 심층생태주의의 복잡성으로 논의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식물의 다양성이 무위자연과 자기조직화의 재생적 창발성을 추동한다는 사유가 추출되었다. 또한 엔트로피, 되먹임조절을 통한 항상성으로서의 자기조직화가 도출되었다. 최승호 시에서 표상된 생태계의 모든 개체적 존재와 전체 생태계는 무위자연과 자기조직화의 재생적 창발성으로 끊임없이 생겨나고 변화해 간다는 것이다.

그의 시에서 이러한 세 주제, 즉 곡신불사와 미분화의 창조성, 만물제동과 프랙탈의 자기유사성, 무위자연과 자기조직화의 재생적 창발성은 생태계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특징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추출되었다. 생태계의 생명현상은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이합집산이 일어나며, 이러한 과정이 혼돈으로부터의 생성, 개체의 구조를 통해 나타나는 자기유사성, 자기조직화를 통한 항상성으로 이어

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최승호 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생태주의의 논의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응의 사유로서 불교적 세계관, 노장사상, 그 외의 방식으로 다양한 성과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그의 시에 내재된 동양사상이나 정신주의 등에 치중됨으로써 현실적 국면으로서의 실천성을 담보한 그의 시적 특징에 관한 논의를 간과했다. 그는 생태계를 대상으로 노장사상과 함께 신과학의 사유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며, 이러한 사유는 생태계 위기에 대응한 사유로서 실천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승호 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생태계 위기에 대응한 의식으로서 현실적 국면으로서의 실천성을 밝혀 논의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최승호, 『회저의 밤』, 세계사, 1993.
_____, 『눈사람』, 세계사, 1996.
_____, 『여백』, 솔출판사, 1997.
_____, 『그로테스크』, 민음사, 1999.
_____, 『모래인간』, 세계사, 2000.
_____, 『물렁물렁한 책』, 마음산책, 2000.
_____,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나』, 열림원, 2003.
_____, 『고비』, 현대문학, 2007.
_____, 『반딧불 보호구역』, 뿔, 2009.
_____, 『북극얼굴이 녹을 때』, 뿔, 2010.
_____, 『아메바』, 문학동네, 2011.
_____, 『허공을 달리는 코뿔소』, 문학동네, 2013.

2. 국내 논저

- 강정구, 「‘물’ 체험을 통한 문명 대안적인 상상력: 최승호 시집『반딧불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학평론』 제7권 제1호 통권24호, 국학자료원, 2003.
고봉준, 「문명의 사막을 건너가는 낙타의 시선-최승호,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나』」, 『한국문학평론』, 2003 가을·겨울, 388쪽.
고현철, 『탈식민주의와 생태주의 시학』, 새미, 2005.
고형진, 『시인의 샘』, 세계사, 1995.
_____, 「현실적 삶의 질곡과 불교적 상상-황동규와 최승호의 불교적 상상력의 시에 대하여」, 『문학정신』, 1992, 2.

- 구수경, 「최승호 시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건양대 석사학위 논문, 2003.
- 김경복, 「최승호 시에 나타난 존재의 현상학」, 『오늘의 문예비평』, 지평, 1991, 4, 179-192쪽.
- 김동명, 『심층생태주의의 유기론적 시학』, 국학자료원, 2013.
- 김문주, 「최승호 후기시의 자연형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회, 2010.
- 김성태, 「최승호 시 연구—생태주의 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수복, 「‘세속도시’에서 ‘천국’으로」, 최동호 외『서정시가 있는 21세기 문학강의실』, 청동거울, 2002.
- 김수이, 「1990년대 ‘몸’시 반란에 대한 기억: 최승호, 김기택, 김혜순을 중심으로」, 『(내일을 여는)작가』, 통권37호, 민족문학작가회의, 2004.
- 김우창, 「관찰과 시—최승호 씨의 시에 부쳐」, 최승호 시집『대설주의보』, 민음사, 1983, 137-162쪽.
- 김준호 외, 『환경물리학』, 형설출판사, 2002.
- 김지혜,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불교적 세계관-1960-1990년 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남송우, 『생명시학 터뒹기』, 부경대학교출판부, 2010.
- 남진숙, 「한국 환경 생태시 연구-이형기 정현중 이하석 최승호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남진우, 『숲으로 된 성벽』, 문학동네, 1999.
- 남진숙, 「한국 환경생태시 연구-이형기, 정현중, 이하석, 최승호 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도우희, 「최승호 생태시의 불교적 세계관」,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도정일, 「최승호 시인의 10년-다시 우화(羽化)의 길에 선 시인을 위하여」, 『회저의 밤』, 세계사, 1993.
- 문선영, 「생명사상과 절대 긍정의 시학」, 『부산대 어문논집』48, 1996.
- 문송하, 「노자의 미학사상 고찰-최승호 생태시를 중심으로」, 『문예시학』 27, 문예시학회, 2012.
- 문혜원, 「텅빔과 섞임, 대상을 향한 두 가지의 시선: 최승호와 이승복의 시」, 『시작』제3권 제1호 통권 제8호, 천년의 시작, 2004, 252-622쪽.
- 박주용, 「최승호 시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백소연, 「최승호 시연구-생태주의 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서경옥, 「최승호의 시세계 변모 연구-적멸(寂滅)에 이르는 시적 도정」,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서선례, 「최승호의 생태학적 시세계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성민엽, 「시선의 시학」, 최승호 시집『아무 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나』, 열림원, 2004.
- 손민달, 「한국 생태주의 시의 미학적 특성 - 정현종 · 김지하 · 최승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송명규, 「생태철학」, 『현대생태사상의 이해』, 따님, 2004.
- 송영상, 「최승호 시의 문명비판과 죽음의식」,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송영순, 「최승호 시와 노장적 사유」, 『돈암語文學』통권 제14호, 돈암어문학회, 2001, 35-54쪽.
- 연남경, 「세속공간의 비극성을 통한 현실 인식: 최승호 시의 은유 분석」, 『梨花語文文集』제20집, 이화여자대학교이화어문학회, 2002.

- 유병석, 「한국 현대 생태시에 나타난 동양적 세계관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윤창식, 「최승호의 ‘고비(Gogi)’를 통해본 자연의 고비」, 『문학과 환경 6 권 2호』, 2007.
- 이건칭, 「최승호 시 연구-생태주의 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이경호, 「‘최후의 인간’을 후려치는 ‘햇빛」, 『북극 얼굴이 녹을 때』해설, 뿔, 2010.
- 이남호, 『녹색을 위한 문학』, 민음사, 1998.
- 이문제, 「내가 만난 시와 시인」, 『시인의 길, 성자의 길』, 문학동네, 2003, 133쪽.
- 이미순, 「1980년대 한국 도시시에 대한 연구」, 『개신어문연구』제20집, 開新語文學會, 2008.
- 이영준, 「최승호 시에 나타난 불교적 세계인식」, 『불교어문논집』4, 1999.
- 이선이, 「回生の 시학: 최승호론」, 『고황논집』제20호, 경희대학교대학원, 1997.
- 이성욱, 「한국 근대문학과 도시성 문제-도시문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이승하, 『생명 옹호와 영원 회귀의 시학』, 새미, 1999.
- 이영준, 「자기부정의 선과 시」, 『문학정신』제42호, 열음사, 1990.
- 이윤경, 「최승호 초기시 연구-‘간힘’의 인식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윤정,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미학 연구-최승호·이성복·기형도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재룡, 「반죽의 세계」, 『물렁물렁한 책』해석, 마음산책, 2000.
- 이진우, 『녹색 사유와 에코토피아』, 문예출판사, 1998.
- _____, 「생태학적 상상력과 자연의 미학」, 신덕룡 편, 『초록생명의 길II』,

- 시와사람사, 2001, 417쪽 참조.
- 이형권, 『현대시와 비평정신』, 국학자료원, 1999.
- 이혜원, 「발 없는 새의 길」, 『작가세계』, 2002, 여름호, 57쪽.
- _____, 「무주(無主)와 갱신(更新)의 도정-최승호론」, 『현대시와비평의 풍경』, 월인, 2002, 170쪽.
- _____, 『생명의 거미줄』, 소명출판, 2007.
- 임도한, 「한국 현대 생태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장은영,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생태 의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장정렬, 「한국 현대 생태주의 시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전영주, 「한국 현대시의 그로테스크 미학 연구-최승호와 김언희의 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미경, 「최승호 시에 나타난 카오스 상상력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정연정, 「한국 시에 나타난 불교생태의식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정끝별, 「구도(求道)의 신화와 알레고리의 시학-최승호론」, 『천 개의 혀를 가진 시의 언어』, 하늘연못, 1999.
- 정효구, 『한국 현대시와 자연 탐구』, 새미, 1998.
- 홍성태, 「생태위기와 생태주의 사회이론의 전개」, 『생태사회를 위하여』, 문화과학사, 2004.
- 홍영희, 「최승호 시에 나타난 죽음에 관한 연구」, 『국어과교육』14권, 1994.
- 홍용희, 「미궁과 허공의 만다라-최승호론」, 『작가세계』 여름호, 2002, 62-76쪽.
- _____, 「최승호의 시 세계와 불교적 상상」, 『한국언어문화』43집, 2010.

3. 외국 논저

- 노자, 김경수 역, 『노자역주』, 문사철, 2010.
- 장자, 최효선 역, 『莊子』, 고려원, 1994.
- 게리 주커브, 김영덕 역, 『춤추는 물리』, 범양사, 2007.
- 데이비드 보움, 전일동 역, 『신물리학의 철학적 테두리』, 민음사, 1991.
- 라이얼 왓슨, 박문재 역, 「우주의 법칙과 질서」, 『초자연』, 인간사, 1991
- 스튜어트 카우프만, 국형태 역, 『혼돈의 가장자리』, 사이언스북스, 2002.
- 에드가 모랭, 신지은, 「복잡성 패러다임」, 『복잡성 사고 입문』, 에코리브르, 2012.
- 에드워드 로렌츠, 박배식 역, 『카오스의 본질』, 파라북스, 2006.
- 에드워드 윌슨, 최재천 역, 「아드리아네의 신타래」, 『통섭』, 사이언스북스, 2005.
- 에리히 얀치, 홍동선 역, 「생물의 순환 과정들」, 『자기 조직하는 우주』, 범양사, 1995.
- 에르빈 슈뢰딩거, 전대호 역, 『생명이란 무엇인가』, 궁리, 2007.
- 와위크 폭스, 정인석 역, 『트랜스퍼스널 생태학』, 대운출판, 2002.
- James E. Lovelock, 홍유희 역, 『가이아Gaia』, 범양사, 1990.
- 존 브리그스 외, 김광태 외 역, 『혼돈의 과학』, 범양사, 1990.
- F. 카프라, 김용정 외 역,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출판부, 2009.
-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과정과 실재』, 민음사, 1991.
- Devall, B, & Sessions, G, *Deep Ecology*(Salt Lake City: Peregrine Smith Books, 1985)
- F. Capra, *The Web of Life*(Anchor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1996)
- Naess, Arne & Rothengerg, David,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Abstract>

A Study on the Complexity of Deep Ecology
in the Poetry of Choi Seung-ho
— With a focus on the perspectives of Lao-Chuang
thought and new science

Kim, Dong-myeong

This study discussed the complexity of deep ecology in the poetry of Choi Seung-ho by perspectives the Lao-Chuang thought with new science.

First, the complexity of deep ecology through the perspectives of Lao-Chuang thought and new science was discussed as Gokshinbalsa and creativity of undifferentiation. Choi Seung-ho contemplated over the life phenomena of individuals and ecosystems created out of confusion from the perspectives of Lao-Chuang thought and new science. He discussed the idea, which argues that individual life phenomena within the ecosystem are related to the entire ecosystem and that there is similarity between the individuals, as Manmuljedong and fractal phenomenon. All the individuals and also individuals and the whole show self-similarity due to mutual correspondence in the ecosystem. Furthermore, regenerative creative power was also discussed through letting nature be and self-organization because complexity was the ground for constant changes and homeostasis.

Choi Seung-ho proposed an understanding of ecosystem principles by embodying the diverse patterns of complexity through Lao-

Chuang thought and new science.

Key Words : Choi Seung-ho, deep ecology, Lao-Chuang though, new science, creativity from confusion, self-similarity, letting nature be

■ 논문접수 : 2015년 7월 20일

■ 심사완료 : 2015년 8월 10일

■ 게재확정 : 2015년 8월 20일